





## 청소년 비행이론의 상대적인 영향력 검증: 아동·청소년 패널자료를 중심으로

황 성 현\*

### 〈요 약〉

우리 사회에서 청소년비행을 가장 잘 설명한다고 평가받는 몇 가지 비행이론을 사용하여 한국청소년비행의 원인을 규명하려는 시도가 다방면으로 이루어져 왔다. 이런 노력의 일환으로 이 연구는 사회유대이론, 사회학습이론, 일반긴장이론, 자기통제이론을 사용하여 청소년비행의 원인을 통합적으로 밝히는 것이 그 주된 목적이었다. 특히 위의 4가지 이론 중에서 어떤 이론이 청소년비행을 가장 잘 설명하는지를 살펴보았으며, 4가지 이론에서 추출된 많은 독립변수들 중에서 어떤 요인이 14가지 청소년비행의 원인을 통계적으로 가장 유의미하게 잘 설명하는지를 파악하는 데 주력하였다. 연구결과, 사회학습이론의 설명력이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사회유대변인들 > 일반긴장이론 > 자기통제이론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회학습이론에서 추출된 친구와의 차별적 접촉과 정의변인은 다른 이론의 변인에 비해 가장 많은 청소년비행 변량을 설명함에 따라 사회학습이론이 가장 효율적으로 청소년비행을 잘 설명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본 연구는 청소년비행을 잘 설명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4가지 비행이론에서 추출된 독립변인들을 바탕으로 청소년비행의 원인을 가장 잘 설명하는 변인들이 무엇인지를 파악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주제어 :** 청소년비행, 사회유대이론, 일반긴장이론, 자기통제이론, 사회학습이론

\* 고려사이버대학교 청소년학과 교수, 주저자

목 차
-----

- |   |
|---|
| I. 서 론<br>II. 이론적 배경<br>III. 연구방법<br>IV. 연구결과<br>V. 결 론 |
|---|

## I. 서 론

지금까지 우리 사회에서 청소년비행의 원인을 밝히려는 시도는 상당히 많이 이루어져왔다. 이런 작업은 주로 범죄학이론이나 범죄심리학이론을 사용하여 어떤 특정한 청소년비행(예를 들면, 사이버비행, 약물남용, 폭력, 집단따돌림, 지위비행 등)의 원인을 알아보는가 하면, 청소년이 저지를 수 있는 모든 유형의 비행에 한꺼번에 적용되기도 했다. 한국청소년들은 주로 음주나 흡연행위, 무단결석, 가출, 사이버비행, 학교에서의 집단따돌림, 친구들을 심하게 조롱하기 등과 같은 비행을 자주 저지르는 경향이 있다. 이 연구의 표본이 된 아동·청소년패널자료에서도 위의 비행유형을 가장 많이 저지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 왜 일부 청소년은 이런 유형의 범죄를 자주 저지르는 반면, 동일한 환경 하에서 대부분의 청소년들은 비행행위를 하지 않는가? 그 근본 원인을 알아야 청소년비행의 예방책을 구체적으로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일반적으로 청소년이 비행 및 범죄를 저지르는 이유는 크게 거시적 측면, 미시적 측면, 개인 심리적 측면에서 조망할 수 있다. 거시적 측면은 사회제도나 사회구조적 왜곡과 모순 때문에 청소년비행이 발생한다고 보는 반면, 미시적 측면은 청소년이 처한 개인 환경적 요인, 즉, 가족이나 친구관계, 학교생활 등을 그 주된 원인으로 설명한다. 개인 심리적 측면은 청소년이 사회구성원들과의 상호작용과정에서

발생되는 부정적인 심리요인들, 예를 들면 불안, 분노, 긴장, 스트레스 등을 그 주된 원인으로 파악한다(고은희·황성현, 2015). 이런 청소년비행의 원인을 밝히기 위해 지금까지 시도된 작업은 주로 단일 비행이론이나 두 가지 이론의 비교분석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간혹 비행이론 중 3가지 정도의 비행이론을 비교분석한 작업은 있지만 4가지 이상의 이론을 사용하여 청소년비행의 원인을 비교분석한 연구결과물은 흔치 않다. 한 가지 사회현상을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그 현상을 초래한 원인을 다각도로 바라보는 것이 필요하다. 청소년비행 또한 마찬가지이다. 단일 표본을 대상으로 가능한 많은 이론을 적용하여 이론의 설명력이 가장 뛰어난 것이 어떤 이론인지를 밝히는 작업은 차후 청소년비행의 원인을 좀 더 명확하게 밝히는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지금까지 청소년비행이론을 적용한 연구결과물 중 가장 많이 사용된 이론은 사회유대이론(social bonding theory), 사회학습이론(social learning theory), 일반긴장이론(general strain theory), 자기통제이론(self-control theory) 등이다. 허쉬(Hirschi)의 사회유대이론은 주로 1990년대 이후에 처음으로 한국청소년비행의 원인을 밝히는데 유익한 측정도구로 사용되어왔다. 특히 형사정책연구원의 정책연구 과제의 일환으로 청소년비행의 원인을 사회유대이론적 시각에서 설명하려는 노력이 있었다. 한편 에이커스(Akers)의 사회학습이론은 2000년대에 들어서 간혹 한 두 연구결과물이 발표되었다. 한국에서 사회학습이론을 사용한 연구결과물은 많지 않다. 왜냐하면, 사회학습이론의 모태가 되는 서덜랜드(Sutherland)의 차별접촉이론(differential association theory)이 더 많이 알려져 있기 때문이다. 사회학습이론은 2003년 황성현과 에이커스(Hwang & Akers, 2003; 2006)가 부산지역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청소년 약물남용의 원인을 밝히는 연구를 시발점으로 점차 경험적 검증을 확대하고 있다. 애그뉴(Agnew)의 일반긴장이론과 갓프레드슨과 허쉬(Gottfredson & Hirschi)의 자기통제이론 또한 2000년대 중반 이후에 경험적으로 많이 검증되고 있는 이론이다. 이 두 이론은 그 속성상 청소년의 개인 심리적 측면을 강조하는 면이 강하기 때문에 특히 최근에 많이 검증되는 이론으로 평가받고 있다. 종합하면, 한국사회에서 청소년비행의 원인은 개인 환경적 측면에서 그 이유를 밝히려는 사회유대이론과 사회학습이론, 개인 심리적 측면을 강조하는 일반긴장이론, 그리고 발전이론(development theory)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자기통제이론 등을 중심으로 설명되고 있는 실정이다.

사회유대이론에서 청소년비행은 사회와의 유대가 약화되거나 깨어졌을 때 발생

한다(Hirschi, 1969).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청소년들이 비행을 저지르는 것이 정상이지만 그들에게 기대를 거는 부모, 친한 친구, 학교선생님 등과 같은 원초집단의 평가나 기대에 어긋나는 것이 두려워 비행을 저지르지 않는다고 본다. 유대이론에서 비행의 가장 강력한 억제요인은 부모와의 애착이다. 부모와의 애착관계가 강한 청소년은 부모의 애착이 비행의 통제요인으로 작용한다. 한편 사회학습이론에서 비행은 친한 친구와의 차별적 접촉을 통해 비행을 정당화하고 합리화하는 가치관을 학습하고, 심지어 비행의 기술도 함께 배운다는 것이다(Akers & Sellers, 2011). 학습이론에서 비행에 가장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친한 친구가 비행을 자주 저지르면 청소년 자신도 학습을 통해 비행에 익숙해진다고 본다. 반면에 비행의 심리적 측면을 강조하는 일반긴장이론에서 청소년비행은 긴장이나 스트레스의 결과로 자연스럽게 발생한다는 것이다(Agnew, 1992). 즉, 청소년은 일상생활에서 여러 긴장요인으로 화, 우울감, 절망감, 스트레스 등의 부정적 감정을 경험하게 되는데 이런 부정적 감정을 해소하기 위해 비행을 저지른다고 본다. 마지막으로 자기통제이론에서 청소년비행은 어린 시절 가정에서의 잘못된 사회화의 결과로 낮은 자기통제감이 형성되고 이렇게 형성된 낮은 자기통제감을 비행의 근본 원인으로 파악한다(Gottfredson & Hirschi, 1990).

위에서 언급한 4가지 비행이론을 종합하면, 청소년비행에서 부모 또는 친구집단과의 약한 유대감이 비행의 원인이 될 수 있고, 친한 친구와의 차별적 접촉이 그 원인이 될 수도 있다. 또한 청소년 자신이 일상생활에서 경험하는 여러 가지 부정적 감정을 해소하기 위해 비행을 저지를 수도 있고, 낮은 자기통제감을 가진 청소년이 평생 동안 여러 가지 비행 및 범죄를 저지르는 상습범죄자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청소년비행의 원인을 밝히기 위한 측정도구로써 사회유대이론, 사회학습이론, 일반긴장이론, 자기통제이론을 살펴 볼 것이다. 이 연구는 위에서 언급한 4가지 비행이론을 중심으로 청소년비행의 원인을 비교 분석하는 것이 그 주된 목적이다. 특히 4가지 이론 중에서 어떤 이론이 청소년비행을 가장 잘 설명하는지를 파악할 것이며, 4가지 이론에서 추출된 많은 독립변수들 중에서 어떤 요인이 14가지 청소년비행의 원인을 통계적으로 가장 유의미하게 잘 설명하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 II. 이론적 배경

이 연구는 청소년비행을 잘 설명하는 이론들 중에서 지금까지 가장 많이 사용된 4가지 비행이론의 상대적인 영향력을 파악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그것은 허쉬의 사회유대이론, 애그뉴의 일반긴장이론, 갓프레드슨과 허쉬의 자기통제이론, 에이커스의 사회학습이론이다. 첫째, 허쉬의 사회유대이론의 기본 가정은 개인과 사회 사이의 유대가 약하거나 깨졌을 때 범죄가 발생한다(Hirschi, 1969)고 본다. 허쉬의 주장에 따르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범죄를 저지르고 싶어도 원초집단에 속하는 부모, 친구, 학교 및 회사동료들이 실망할까봐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법, 도덕, 사회적 관습, 주위의 평판 등을 해치지 않고 건전하게 살아간다는 것이다. 이런 역할을 하는 힘이 바로 ‘사회통제(social control)’이며 허쉬의 사회유대이론에서는 ‘사회유대(social bonding)’라는 것이다. 사회유대이론은 애착(attachment), 관여(commitment), 참여(involve-ment), 신념(belief)이라는 4가지 개념에 초점을 맞추어 범죄와 비행 및 일탈행동을 설명한다(Hirschi, 1969). 즉, 청소년들이 부모 및 친구와의 애착이 강하면 강할수록(애착), 전통적인 교육이나 직업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투자를 많이 할수록(관여), 각종 과외활동이나 동아리활동 등에 많은 시간을 할애할수록(참여), 법준수에 대한 신념 및 종교적 신념이 강할수록(신념), 청소년 자신이 특정 범죄 및 비행을 저지를 가능성은 낮아진다고 할 수 있다. 서구 사회에서 사회유대이론은 사회학습이론과 함께 경험적으로 가장 많이 검증된 이론 중 하나다. 서구 사회의 경험적 연구에서 사회유대이론은 상당한 타당성을 획득했다(Cernkovich & Giordano, 1992; Costello & Vowell, 1999; Krohn, et al., 1983). 우리나라에서도 허쉬의 사회유대이론에 대한 경험적 연구는 제법 존재한다(김상원, 2007; 임은희·서현숙, 2007; 전영실, 2003). 한국청소년패널자료를 사용한 김상원(2007)의 연구에서 사회유대이론은 아동비행과 청소년비행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애그뉴는 그의 일반긴장이론에서 범죄발생의 원인으로 첫째, 목표달성의 실패, 둘째, 긍정적 자극의 소멸, 셋째, 부정적 자극의 발생을 제시했다. 애그뉴의 주장에 따르면, 스트레스 및 긴장(strain)의 유형은 모두 다르지만 범죄와 비행은 모두 스트레스의 결과로 파악한다. 이렇게 스트레스나 긴장이 발생하면 이를 해소하기 위해 범죄행위를 한다는 것이다. 즉, 인간은 여러 긴장요인으로 화, 우울감, 절망감 등의

부정적 감정을 경험하게 되며, 그러한 부정적 감정을 해소하기 위해 범죄 및 비행을 저지른다는 것이다(Agnew, 1992). 일반긴장이론은 외국과 한국의 선행연구에서 다양한 종류의 긴장이 청소년비행과 깊은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Agnew, et al., 2002; Broidy, 2001; Mazerolle & Maahs, 2000; Piquero & Scalock, 2000; 문병욱, 황혜원, 2006; 임은희, 남현주, 2008; 정소희, 2007; 황혜원, 2009). 예를 들면, 황혜원(2009)의 중단연구에서 청소년의 폭력비행과 지위비행에 가족갈등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유사하게 정소희(2007)의 연구에서도 부부갈등이 양육행동과 자아통제력을 매개변인으로 하여 비행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다.

셋째, 1990년에 허쉬는 통제이론으로서의 전통적 사회유대이론에서 벗어나 갓프레드슨과 함께 통제의 한 유형인 자기통제에 근거한 이론을 제안하였다(Gottfredson & Hirschi, 1990). 이 이론에 따르면, 자기통제력(self-control)이 낮은 사람은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은 데 비해, 자기통제력이 높은 사람은 평생을 살면서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낮다고 설명한다. 모든 범죄행위의 가능성은 낮은 자기통제력(low self-control) 때문으로 주장했다. 낮은 자기통제력은 모든 범죄유형에 발견되는데 이 낮은 자기통제력은 어릴 때 가정에서의 부적절한 사회화의 결과로 나타난다고 주장했다. 즉, 어린 시절 가정에서 부모가 자녀의 비행행위를 알지 못하거나, 알더라도 적절한 처벌을 하지 않을 때 자녀의 낮은 자기통제력이 생성된다는 것이다(Gottfredson & Hirschi, 1990). 낮은 자아통제력을 가진 사람들은 “충동적이고, 무신경하고, 육체적이고, 위험한 행동을 선호하고, 근시안적이며, 말보다는 행동으로 스스로를 표현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다(Gottfredson & Hirschi, 1990). 그라스미크(Grasmick)과 그의 동료들은 갓프레드슨과 허쉬의 기본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낮은 자아통제력을 측정하는 6가지 중요 요소가 있다고 주장하였다(Grasmick, et al., 1993). 즉, 자아통제력이 낮은 사람들은 첫째, 매사에 만족감을 늦추기 힘들어 충동적이고(impulsivity), 둘째, 그들은 부지런함과 집요함이 부족하여 단순작업을 선호하며(simple tasks), 셋째, 모험적이며 위험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으며(risk-seeking), 넷째, 육체적 활동을 좋아하며, 무엇을 장기적으로 추구하는데 흥미가 없으며(physical activities), 다섯째, 자아 중심적이며 다른 사람들의 어려움에는 무신경하며(self-centered), 여섯째, 인내심이 부족하며 갈등이 발생했을 때 말로 해결하기 보다는 물리적 힘을 사용하는 경향이 있다(temper). 이런 낮은 자아통제력과 비행 및 범죄와

의 깊은 관련성을 밝혀 낸 연구결과물은 상당한 수준에 이른다(Burton et al., 1994; Evans et al., 1997; Gibbs & Giever, 1995; Grasmick et al., 1993; Piquero & Tibbetts, 1996; Wood et al., 1993). 국내에서도 자기통제이론은 상당수의 경험적 검증과정을 거쳤다(고정자, 2005; 김재엽 외, 2007; 민수홍, 2006; 신송연·장현석, 2013; 조유정 외, 2005). 청소년학대와 비행의 자료를 사용하여 자기통제이론을 검증한 연구결과, 부모의 자기통제력 중에서 모의 자기통제력이 자녀의 비행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신송연·장현석, 2013).

마지막으로 에이커스의 사회학습이론에 따르면, 비행이나 일탈은 사회구성원들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학습된다(Akers & Sellers, 2011). 사회학습이론에 의하면 사람들은 자신에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다른 사람이나 집단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스스로의 행동을 평가하도록 학습된다. 사회학습이론은 차별적 접촉(differential association), '정의(definitions)', '차별적 강화(differential reinforcement)', '모방(imitation)' 이라는 4가지 개념에 초점을 맞추어 일반적인 범죄와 비행, 일탈행동을 설명하고 있다(Akers & Sellers, 2011). 청소년비행을 잘 설명하는 이론으로 사회학습이론이 지지를 받았던 많은 선행연구 결과들이 있다(Brezina & Piquero, 2003; Chappell & Piquero, 2004; Hwang & Akers, 2003; 2006; Osgood & Anderson, 2004; Sellers, et al., 2003). 사회학습이론을 적용한 국내연구 또한 다양하다. 특히 다른 범죄이론과의 비교연구에서 사회학습이론의 설명력이 가장 뛰어난 것으로 밝혀졌다(고은희·황성현, 2015; 박정신·황성현, 2013; 유순화·정규석, 2003; 이완희, 2014; 이완희·유완석, 2014; 이완희·황성현, 2014; 황성현, 2006a; 2006b; 2007; 2008; 2009; 2010a; 2010b; 2012; 황성현·이강훈, 2013). 이완희와 황성현의 한국아동청소년패널자료를 이용한 구조방정식 분석결과, 청소년비행의 근본 원인은 친구와의 차별적 접촉을 통한 매개효과가 일반긴장이론의 부정적 자극의 긴장요인보다 더 크게 나타났다(이완희·황성현, 2014). 즉, 부정적 자극을 경험한 청소년들은 우울감, 불안감, 공격성 등이 상당히 증가하지만, 이런 긴장요인이 청소년 일반비행 및 사이버비행과 직결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히려 청소년들은 비행친구들과 자주 어울림으로써 청소년 자신도 일반비행과 사이버비행을 저지를 확률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사회학습이론의 친구와의 차별적 접촉변인이 청소년 일반비행 및 사이버비행을 가장 잘 설명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 Ⅲ. 연구방법

####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조사한 2013년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KCYPS) 중학교 1학년의 4차년도 데이터를 분석 자료로 사용하였다(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5). 아동·청소년패널자료는 2010년도에 1차 자료가 수집되기 시작하여 2013년도에는 중1패널이 고1학년이 되는 시점에 조사된 자료이다. 표집방법으로는 전국의 중학교 1학년에 재학하는 청소년 중에서 층화다단계집락표집 방법을 통해 총 2,351명의 응답자들을 대상으로 2010년에 1차 자료를 수집하였다. 2차년도(2011년) 조사에서는 1차년도에 확정된 표본을 대상으로 추적 조사한 결과, 총 2,280명을 조사하여 성공한 표본율은 97.0%, 3차년도(2012년)에는 총 2,259명을 조사하여 표본유지율은 96.1%, 제4차년도(2013년)에는 총 2,108명을 조사하여 표본유지율은 89.7%를 나타내고 있다(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5). 본 연구에 사용된 4차년도 자료는 3차년도에 비해 표본의 이탈율이 약 7% 정도를 나타내고 있으며, 2010년 원표본인 2,351명과 비교할 때 약 10%의 이탈율을 보이고 있으므로 전반적으로 표본이탈율이 적은 편에 속하는 자료로 평가할 수 있다.

#### 2. 연구변인의 측정

본 연구의 종속변인은 청소년비행유무이다. 아동청소년패널에 나타난 청소년비행의 문항은 총 14가지 비행유형이며 최솟값은 0(모든 유형의 비행을 한 경험이 없는 경우)이고 최댓값은 14(모든 유형의 비행을 경험한 경우)를 가진다. 본 연구의 독립변인은 사회유대이론, 일반긴장이론, 자기통제이론, 사회학습이론에서 추출된 변인들을 사용하였으며 <표 1>에 잘 나타나 있다. 사회유대이론에서 추출된 독립변인은 참여(2문항), 관여(1문항), 부모감독(3문항), 부모애착(4문항), 친구애착(5문항), 교사애착(5문항), 학교애착(5문항)으로 총 7개의 독립변수로 구성되어 있다. 자기통제이론에서 추출된 변수는 총 6개이며, 만족감을 늦추기 힘들(1문항), 단순작업선호(2문항), 위험추구경향(1문항), 육체적 활동선호(1문항), 인내심결핍(3문항), 자기중심성(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사회학습이론의 독립변수는 총 2개로 친구와의 차별적 접촉

〈표 1〉 연구 변인별 문항수와 문항내용

비행이론	변인	문항수	문항내용
종속 변인	청소년 비행	14문항	지난 1년간 14가지 청소년비행 경험 유무
	참여	2문항	지난 일 년 동안 가족과 함께 1박 이상의 여행 횟수 / 지난 일 년 동안 문화 활동을 한 횟수
	관여	1문항	학생은 자신의 학교성적에 대해 얼마나 만족합니까
사회유대	부모감독	3문항	내가 방과 후에 어디에 가는지 알고 계신다 ~ 내가 외출할 경우 언제 들어올지 알고 계신다
	부모애착	4문항	다른 일보다 나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신다 ~ 내가 많이 아프면 적절한 치료를 받게 하신다.
	친구애착	5문항	우리반 아이들과 잘 어울린다 ~ 놀이나 모둠활동을 할 때 친구들이 내말을 잘 따라 준다
	교사애착	5문항	선생님을 만나면 반갑게 인사한다 ~ 내년에도 지금 선생님께서 담임선생을 해 주셨으면 한다
	학교애착	5문항	나는 수업시간이 재미있다 ~ 공부시간에 딴짓을 함.
	만족감 지연	1문항	칭찬을 받거나 벌을 받아도 금방 다시 주위가 산만해진다
	단순작업 선호	2문항	문제를 풀 때 문제를 끝까지 읽지 않는 편이다 ~ 오랫동안 집중하는 과제는 하고 싶지 않다
독립 변인	위험추구 경향	1문항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 실수를 하거나 사고를 낸다
	자기통제	1문항	공부할 때 차분하게 앉아 있기 힘들다
	인내심 결핍	3문항	작은 일에도 트집을 잡을 때가 있다 ~ 내가 원하는 것을 못하게 하면 따지거나 덤빈다
	자기중심성	4문항	주변에 어려움에 처해 있는 친구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돕는다 ~ 지구를 보호하기 위해 물자절약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
	사회학습	차별접촉	14문항
정의		5문항	당번이나 1인 1역 등 반에서 맡은 활동을 잘한다 ~ 휴지 등을 버릴 때 꼭 휴지통에 버린다
일반긴장	목표실패	1문항	일 년 동안 가구소득은 어느 정도입니까?
	긍정소멸	1문항	현재 함께 살고 있는 가족의 구성은?
	충동성	3문항	별 것 아닌 일로 싸우곤 한다 ~ 아무 이유없이 울 때가 있다

불안감	8문항	깊이 잠들지 못하고 자다가 잠에서 깨곤 한다 ~ 자주 열이 나는 것처럼 느껴진다
우울감	10문항	기운이 별로 없다 ~ 모든 일이 힘들다
친구긴장	7문항	지난 일 년 동안 다른 청소년들로부터 아래와 같은 피해를 당한 적이 있습니까?
부모긴장	4문항	내가 무언가 잘못했을 때 부모님께서는 정도 이상으로 심하게 혼내신다 ~ 부모님께서는 나에게 심한 말이나 욕을 하신 적이 많다

(14문항)과 정의(5문항)로 구성되어 있다. 마지막으로 일반긴장이론의 독립변수는 총 7개이며, 목표달성의 실패(1문항), 긍정적 자극의 소멸(1문항), 충동성(3문항), 불안감(8문항), 우울감(10문항), 친구긴장(7문항), 부모긴장(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연구에 사용된 통제변인은 성별변인이다. 성별은 여자=0, 남자=1로 더미(dummy) 처리하였다.

### 3. 분석단계

이 연구는 청소년비행의 원인을 잘 설명하는 비행이론의 상대적인 영향력을 비교 분석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첫째, 종속변인인 청소년비행에 대한 빈도분석을 실시하였으며 <표 2>에 그 결과가 나타나 있다. 빈도분석에서 중1학년 4차년도 데이터(고1학년)의 종속변인을 3차년도 데이터(중3학년)와 비교함으로써 지난 1년 동안 청소년 비행율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를 살펴 볼 것이다. 둘째, 청소년비행을 설명하는 4가지 비행이론의 독립적인 영향력을 파악하기 위해 각 이론에서 추출된 독립변인을 단독으로 회귀방정식에 회귀시켰으며 그 결과는 <표 3>에 잘 나타나 있다. 4가지 회귀방정식에 투입된 독립변인들이 청소년비행을 얼마만큼 설명하는지는 결정계수( $R^2$ )를 통하여 파악하였다. 또한 각 독립변인들의 베타계수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지 등을 통하여 종속변인에 대한 각 독립변인들의 영향력을 파악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성별을 통제한 상태에서 4가지 비행이론의 독립변인들의 상대적인 영향력을 파악하기 위해 모든 독립변인들을 한 회귀방정식에 회귀시켰다. <표 4>는 모든 독립변인들이 한 회귀방정식 안에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각 각의 독립변인들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얼마나 큰지를 알 수 있다. 특히 <표 4>의 model 2부터

model 5까지의 회귀방정식에서 제시된 결정계수를 모든 독립변인이 투입된 통합회귀방정식인 model 1의 결정계수와 비교함으로써 4가지 독립변인들의 상대적인 영향력을 파악할 수 있었다.

## IV. 연구결과

### 1. 빈도분석 결과

종속변인인 청소년비행 경험 유무의 2012년과 2013년 남녀별 비율은 <표 2>와 같다. 2013년도에 청소년들이 14가지 각종 비행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0.0%에서 11.6% 정도로 나타났다. 비행비율이 가장 높은 유형은 음주행위로 11.6%로 나타났다으며 흡연은 8.0%이다. 그 다음으로 높은 비율은 심하게 조롱하기(3.3%) > 무단결석(3.1%) > 도박게임하기(2.2%) 순이며 그 외 청소년비행은 0%대로 미미한 수준

<표 2> 청소년비행 경험유무의 연도별, 남녀별 비율 (단위: %)

청소년비행	2012년도(중3학년)			2013년도(고1학년)		
	전체	남자	여자	전체	남자	여자
흡 연	6.3	10.6	2.2	8.0	14.8	2.9
음 주	6.8	8.7	5.5	11.6	18.1	7.5
무단결석	3.4	4.2	2.9	3.1	4.6	2.4
가출	2.3	2.9	2.0	1.6	2.2	1.4
심하게 조롱하기	3.8	6.6	1.3	3.3	6.5	0.7
집단따돌림(왕따)	0.6	1.1	0.3	0.6	1.0	0.3
패싸움	0.4	0.6	0.2	0.3	0.4	0.2
심한 구타	0.6	1.1	0.1	0.6	1.3	0.1
협박	0.3	0.7	0.0	0.1	0.3	0.0
(돈, 물건) 빼앗기	0.6	1.1	0.3	0.2	0.3	0.1
(돈, 물건) 훔치기	0.5	0.6	0.4	0.3	0.4	0.3
성관계	0.2	0.4	0.1	0.4	0.7	0.3
성폭행, 성희롱	0.2	0.2	0.2	0.0	0.1	0.0
도박게임하기	2.8	5.5	0.3	2.2	4.6	0.2

이다. 남녀별 비율에서 음주행위는 남자: 여자 비율이 18.1%: 7.5%로 남자청소년이 여자청소년에 비해 약 2.4배 정도 높았으며, 흡연행위는 약 5배정도 더 높았다. 그 외 다른 비행유형에서도 남자청소년은 여자청소년에 비해 훨씬 높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다. 특히 도박 게임하기에서 남자청소년은 여자청소년에 비해 23배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2013년도 고1 청소년들의 전년대비 비교에서 음주와 흡연행위는 더 늘어났으며 전년도인 2012년도에도 청소년들은 흡연과 음주행위를 가장 많이 한 것으로 드러났다. 성관계 비행 또한 전년대비 약 0.2% 늘어났다.

그러나 그 외 비행유형에서는 전년대비 전반적으로 조금씩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즉, 청소년들은 중학교 3학년에서 고등학교 1학년으로 진학함에 따라 여러 가지 주위 환경적 요인에 의해 음주와 흡연 및 성관계 비행을 제외한 모든 비행유형을 조금씩 덜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렇게 전반적으로 청소년비행이 줄어든 이유는 점차 질풍노도의 사춘기를 벗어남에 따라 조금 더 성숙한 인격체로서 성장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증거라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2013년도에 미성숙한 청소년들에게 흔히 나타나는 비행유형인 뺑뺑기와 흡치기 등에서 전년대비 약 2배 정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2013년도에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각종 비행비율은 전년대비 약간 줄어들었으며 음주와 흡연행위 등을 제외하고는 크게 심각한 수준은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 2. 회귀분석 결과

청소년비행의 근본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청소년비행을 가장 잘 설명하는 비행이론에서 추출된 변인들을 사용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3>은 사회유대이론, 일반긴장이론, 자기통제이론, 사회학습이론의 변인들이 각각 어느 정도 청소년비행을 설명하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4가지 이론들을 따로 분리하여 회귀분석을 실행하였다. 첫째, 사회유대 변인들은 청소년비행의 9.8%를 설명하였다. 7가지 사회유대변인 중에서 청소년비행을 가장 잘 설명하는 변인은 학교 애착변인이며 그 다음으로 친구애착변인이  $p < .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다. 그 외 참여, 관여, 부모감독, 부모애착, 교사애착 변인은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따라서 청소년들은 학교에 대한 애착이 약할수록, 친구애착이 강할수록 청소년비행을 더 많이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일반긴장

〈표 3〉 청소년비행에 대한 각 이론들의 회귀분석 결과

독립변인	청소년비행
<b>사회유대이론</b>	
참여	.027
관여	.003
부모감독	.060
부모애착	-.018
친구애착	-.199***
교사애착	.036
학교애착	.294***
결정계수(R <sup>2</sup> )	.098
사 례 수 (N)	2,078
<b>일반긴장이론</b>	
목표달성의 실패	.008
긍정적 자극의 소멸	.075**
충동성	.051
불안감	.028
우울감	-.031
부모긴장	-.131***
친구긴장	.185***
결정계수 (R <sup>2</sup> )	.067
사 례 수 (N)	2,050
<b>자기통제이론</b>	
만족감을 늦추기 힘들	-.046
단순작업선호	.020
위험추구경향	-.032
육체적 활동 선호	-.073**
인내심 결핍	-.106***
자기중심성	.041
결정계수 (R <sup>2</sup> )	.038
사 례 수 (N)	2,107
<b>사회학습이론</b>	
정의	.161
친구차별접촉	.380

결정계수 ( $R^2$ )	.188
사 례 수 (N)	2,067

\*\*\* $p < .001$ , \*\* $p < .01$ , \* $p < .05$

이론의 변인들은 청소년비행의 6.7%를 설명하고 있었다. 일반긴장이론의 변인 중에서 친구긴장의 영향력이 .185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부모긴장=.131 > 긍정적 자극의 소멸=.075로 나타났으며 이 변인들은 95%의 신뢰수준 이상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청소년비행을 잘 설명하고 있다. 즉, 친구들에게 괴롭힘을 많이 당할수록, 부모에게 언어적, 물리적 학대나 폭력을 많이 당할수록, 양부모와 같이 거주하지 않을수록 청소년 자신이 각종 비행을 더 많이 저지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셋째, 자기통제이론의 변인들을 청소년비행에 회귀한 결과, 전체 청소년비행의 3.8% 변량을 설명하고 있었다. 자기통제 변인 중에서 인내심결핍의 영향력이 -.106으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육체적 활동선호=.073 으로 드러났다. 그 외 변인들은 청소년비행의 원인을 잘 설명하지 못했다. 따라서 청소년들이 인내심이 결핍되어 있을수록, 육체적 활동을 선호할수록 청소년비행을 더 많이 저지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사회학습이론의 두 가지 독립변인은 청소년비행의 18.8%를 설명했다. 친구와의 차별접촉 변인의 표준화된 베타계수는 .380이고, 정의변인은 .161로 나타났으며 이는  $p < .001$  수준에서 두 변인 모두 청소년비행을 잘 설명하고 있었다. 즉, 친한 친구들이 각종 청소년비행을 많이 저지른수록, 학교의 규칙 등을 잘 지키지 않을수록 청소년 자신이 각종 비행을 더 많이 저지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4가지 비행이론에서 추출된 변인들이 단독으로 청소년비행을 어느 정도 설명하는지를 파악한 회귀분석결과를 종합하면, 사회학습이론의 설명력이 18.8%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사회유대변인들이 9.8%, 일반긴장이론이 6.7%, 자기통제이론이 3.8%로 나타났다. 특히 사회학습이론에서 추출된 두 가지 변인은 다른 이론들에 비해 회귀방정식에 투입된 변인 수가 가장 적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많은 청소년비행 변량을 설명함에 따라 사회학습이론은 가장 효율적으로 청소년비행을 잘 설명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표 4> 는 성별을 통제한 상태에서 4가지 비행이론에서 추출된 변인들의 상대적인 영향력을 파악하기 위해 모든 독립변인들을 한 회귀방정식에 회귀시킨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Model 1은 4가지 비행이론에서 추출된 모든 독립변인들을 한 회귀방정식에 투입된 통합모델이며, Model 2는 사회유대이론이 통합모델에서 제외된 모델

〈표 4〉 청소년비행에 대한 상대적인 영향력 검증결과

독립변인	Model 1 (통합 모델)	Model 2 (유대이론 제외)	Model 3 (긴장이론 제외)	Model 4 (자기통제 이론제외)	Model 5 (학습이론 제외)
<b>통제변인</b>					
성별	.104***	.106***	.111***	.107***	.186***
<b>사회유대이론</b>					
참여	.004		.003	.006	
관여	.010		.009	.012	
부모감독	.039		.035	.037	
부모애착	-.023		-.010	-.023	
친구애착	-.160***		-.152***	-.166***	
교사애착	.049*		.038	.045	
학교애착	.178***		.184***	.171***	
<b>일반긴장이론</b>					
목표달성실패	.000	.012		-.002	.005
긍정자극소멸	.055**	.061**		.055**	.055**
충동성	.046	.032		.063*	.045
불안감	-.027	-.029		-.023	.002
우울감	-.010	-.008		-.007	-.010
부모긴장	-.031	-.051*		-.031	-.034
친구긴장	.121***	.117***		.123***	.174***
<b>자기통제이론</b>					
만족감 지연	.011	-.013	.006		-.007
답순작업선호	.014	-.016	.024		.041
위험추구경향	-.014	-.015	-.025		-.026
육체활동선호	.007	-.022	.009		.015
안내심결립	-.047	-.049*	-.064**		-.066*
자기중심성	-.022	-.027	-.013		-.023
<b>사회학습이론</b>					
정의	.090***	.132***	.087***	.090***	
친구차별접촉	.312***	.331***	.323***	.315***	
결정계수 (R <sup>2</sup> )	.265	.231	.245	.263	.181
사 례 수 (N)	2,014	2,015	2,066	2,014	2,025

\*\*\*p<.001, \*\*p<.01, \*p<.05

이다. Model 3은 통합모델에서 일반긴장이론이 제외된 모델이며, Model 4는 자기통제이론이 제외된 모델이고, Model 5는 사회학습이론의 변인들이 제외된 회귀방정식이다. 모델 1에서 모든 독립변인들은 청소년비행 변량의 26.5%를 설명하고 있으며 유대이론이 제외된 모델 2는 청소년비행의 23.1%를, 일반긴장이론이 제외된 모델 3은 24.5%를, 자기통제이론이 제외된 모델 4는 26.3%를, 마지막으로 사회학습 변인이 제외된 모델 5는 청소년비행 변량의 18.1%를 설명하고 있다. 이 결과는 통합모델에서 각 이론의 변인들이 제외될 때 얼마만큼 설명력이 떨어지는가를 살펴봄에 따라 각 이론의 설명력이 강하다면 통합모델의 결정계수와 비교하여 더 급격한 수치 감소가 나타날 것이며, 각 이론의 설명력이 약하다면 통합모델의 결정계수와 별 반 차이가 나지 않을 것이다. 이에 따라 통합모델의 결정계수인 ( $R^2$ )=.265와 비교하여 가장 감소한 모델은 사회학습이론이 제외된 모델 5의 결정계수인 ( $R^2$ )=.181이다. 즉, 통합모델에서 사회학습이론의 변인들이 제외됐을 때 청소년비행의 변량은 .265에서 .181로 떨어짐에 따라 사회학습이론의 설명력이 가장 높았다는 사실을 반증해 주고 있다. 반대로 통합모델에서 자기통제이론의 변수들이 제외된 모델 4의 결정계수는 .263이므로 통합모델의 결정계수에서 0.001의 차이밖에 나지 않는다. 이 결과는 통합모델에서 자기통제이론의 변수들이 없어도 청소년비행의 변량을 26.3%를 설명하고 있으므로 자기통제이론의 설명력은 가장 약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구체적으로 모델 1의 회귀식에서 95% 이상의 신뢰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가장 큰 많은 영향을 미친 변수는 사회학습이론의 친구차별접촉 변인(.312)이며 그 다음으로 학교애착(.178) > 친구애착(-.160) > 친구긴장(.121) > 성별(.104) > 정의(.090) 순이다. 사회유대이론이 제외된 모델 2의 회귀식에서  $p < .05$  이상의 신뢰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청소년비행을 유의미하게 잘 설명한 변인은 친구차별접촉(.331) > 정의(.132) > 친구긴장(.117) > 성별(.106) > 긍정적 자극의 소멸(.061) > 부모긴장(-.051) > 인내심결핍(-.049) 순으로 드러났다.

일반긴장이론의 변인들이 제외된 모델 3에서  $p < .05$  이상의 신뢰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청소년비행을 유의미하게 잘 설명한 변인은 친구차별접촉(.323) > 학교애착(.184) > 친구애착(-.152) > 성별(.111) > 정의(.087) > 인내심결핍(-.064) 순이다. 자기통제이론이 통합모델에서 제외된 모델 4의 회귀식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변수는 친구차별접촉(.315) > 학교애착(.171) > 친구애착(-.166) > 친구긴장(.123) > 성별(.107) > 정의(.090) 순이다. 마지막으로 통합회귀식에서 두 가지 사회학습변인이 제외된 회

귀식인 모델 5에서 청소년비행을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잘 설명한 변인은 성별 (186) > 친구긴장(.174) > 인내심결핍(-.066) > 긍정적 자극의 소멸(.055) 순으로 나타났다.

<표 4>의 5가지 회귀방정식을 종합하면, 4가지 비행이론에서 추출된 변인들 중에서 청소년비행을 가장 잘 설명하는 변인은 사회학습이론의 친구차별접촉변인으로 베타계수는 .312에서 .331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는 사회유대이론의 학교애착변인의 설명력이 대체적으로 높았으며 친구애착변인의 설명력도 상당히 높게 나타났다. 즉, 사회유대이론의 변인들 중에서는 학교애착과 친구애착 변인의 설명력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했으며, 일반긴장이론의 변인들 중에서는 긍정적 자극의 소멸과 친구긴장변인이, 자기통제이론의 변인들 중에서는 인내심결핍변인만이, 사회학습이론에서는 두 가지 변인(정의, 친구차별접촉)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드러났다. 따라서 학교에 대한 애착이 약할수록, 친구에 대한 애착이 강할수록, 양부모와 함께 살지 않을수록, 친구들의 폭행이나 괴롭힘이 많을수록, 인내심이 결핍되어 있을수록, 학교의 규칙을 잘 지키지 않을수록, 친구들 중에 청소년비행을 자주 저지르는 사람이 많을수록, 여자보다는 남자일수록 청소년 자신이 각 종 청소년비행을 더 많이 저지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사회학습이론에서 추출된 친구와의 차별접촉 변인의 베타계수가 가장 높게 나타남에 따라 전체 독립변인 중에서 이 변수가 청소년비행의 원인을 설명하는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 V. 결 론

이 연구는 청소년비행의 원인을 잘 설명하는 것으로 알려진 4가지 비행이론의 상대적인 영향력을 비교분석하는 데 있었다. 이를 위해 청소년비행을 설명하는 4가지 비행이론의 독립적인 영향력을 파악하기 위해 각 이론에서 추출된 독립변인을 단독으로 회귀방정식에 회귀시켰다. 또한 성별을 통제한 상태에서 4가지 비행이론에서 추출된 독립변인들의 상대적인 영향력을 파악하기 위해 모든 독립변인들을 한 회귀방정식에 회귀시킨 후 각 이론의 변수들을 차례대로 통합모델에서 제외시킬 때 각 모델에서 회귀식의 결정계수가 어떻게 변하는지 살펴보았다. <표 3>에서 4가지 비행이론의 변인들이 단독으로 청소년비행을 어느 정도 설명하는지를 파악한 회귀분

석결과, 사회학습이론의 설명력이 18.8%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사회유대변인들이 9.8%, 일반긴장이론이 6.7%, 자기통제이론이 3.8%로 나타났다. 특히 사회학습이론에서 추출된 두 가지 변인은 다른 이론들에 비해 회귀방정식에 투입된 변인 수가 가장 적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많은 청소년비행 변량을 설명함에 따라 사회학습이론은 가장 효율적으로 청소년비행을 잘 설명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 다음 <표 4>에서 성별을 통제된 상태에서 4가지 비행이론에서 추출된 변인들의 상대적인 영향력을 파악하기 위해 모든 독립변인들을 한 회귀방정식에 회귀시킨 결과, 모델 1에서 모든 독립변인들은 청소년비행 변량의 26.5%를 설명하고 있으며 유대이론이 제외된 모델 2는 청소년비행의 23.1%를, 일반긴장이론이 제외된 모델 3은 24.5%를, 자기통제이론이 제외된 모델 4는 26.3%를, 마지막으로 사회학습 변인이 제외된 모델 5는 청소년비행 변량의 18.1%를 설명하였다. 이에 따라 통합모델의 결정계수인 ( $R^2$ )=.265와 비교하여 가장 감소한 모델은 사회학습이론이 제외된 모델 5의 결정계수인 ( $R^2$ )=.181이었다. 즉, 통합모델에서 사회학습이론의 변인들이 제외됐을 때 청소년비행의 변량은 .265에서 .181로 떨어짐에 따라 사회학습이론의 설명력이 가장 높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구체적으로 <표 4>의 독립변수들의 영향력을 분석한 결과, 청소년비행을 가장 잘 설명하는 변인은 사회학습이론의 친구차별접촉변인으로 베타계수는 .312에서 .331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는 사회유대이론의 학교애착변인의 설명력이 대체적으로 높았으며 친구애착변인의 설명력도 상당히 높게 나타났다. 즉, 사회유대이론의 변인들 중에서는 학교애착과 친구애착 변인의 설명력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했으며, 일반긴장이론의 변인들 중에서는 긍정적 자극의 소멸과 친구긴장변인이, 자기통제이론의 변인들 중에서는 인내심결핍변인만이, 사회학습이론에서는 두 가지 변인(정의, 친구차별접촉)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연구는 지금까지 우리 사회에서 청소년비행의 원인을 설명하는데 가장 많이 적용된 비행이론들의 상대적인 영향력을 검증했다는 데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연구는 몇 가지 한계점을 지니고 있다. 첫째로, 본 연구에서 사용된 변인들은 주로 범죄학적, 사회심리학적 변인들만 사용했다는 점이다. 최근 청소년비행을 잘 설명하는 것으로 자주 사용되는 변인으로는 공격성, 충동성 불안, 분노 같은 부정적 감정이 청소년비행을 어떻게 설명하는지를 검증하는 논문들이 제법 존재한다. 이런 부정적 감정은 특히 인터넷 중독이나 도박중독, 음주와 흡연행위 등을

잘 설명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Holliday, 2000; Mitchell, 2000; Young, 1999; 이혜순, 2014; 최은미 외, 2014). 따라서 차후 연구에서는 청소년비행을 잘 설명하는 사회심리학적 변인들뿐만 아니라 공격성, 충동성 등과 같은 부정적인 심리감정 변인들을 함께 사용하여 청소년비행의 원인을 규명할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는 아동·청소년패널자료 중 2013년도에 수집된 자료 횡단자료를 사용하였다. 그러나 이 자료는 2010년에 1차 자료를 수집한 후 2013년에 수집된 4차년도 자료까지 공개되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사용된 동일한 측정도구를 사용하여 시간적 흐름에 따른 청소년비행의 변화율에 어떤 변인들이 중요한 영향력을 미치는지를 살펴 볼 필요가 있다. 즉, 연도별로 한국 청소년의 비행변화에 강력한 영향력을 미치는 요인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를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결론적으로 연구가 가지는 몇 가지 한계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청소년비행을 가장 잘 설명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4가지 비행이론에서 추출된 독립변인들을 바탕으로 청소년비행의 원인을 가장 잘 설명하는 변인들이 무엇인지를 파악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 참고문헌

### 1. 국내문헌

- 고은희, 황성현 (2015). 청소년의 부정적인 심리요인이 사이버비행에 미치는 영향. **한국경찰학회보**, 17(3), 3-26.
- 고정자 (2005). 부모의 감독정도와 청소년의 자기통제력이 청소년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43(2), 1-17.
- 김상원 (2007). 아동과 청소년 비행의 원인비교: 허쉬의 사회유대이론을 중심으로. **형사정책연구**, 18(2), 325-362.
- 김재엽, 이효정, 강민지 (2007). 가족응집력이 청소년의 학교폭력 가해에 미치는 영향: 자기통제력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청소년학연구**, 14(6), 173-201.
- 문병욱, 황혜원 (2006). Agnew의 일반긴장이론을 통한 한국 청소년의 비행 이해. **아동권리연구**, 10(2), 127-150.
- 민수홍 (2006). 청소년의 자기통제력이 비행과 범죄에 미치는 영향: 패널자료를 이용한 인과성 및 일반성 검증. **청소년학연구**, 13(6), 27-47.
- 박정선, 황성현 (2013). 청소년의 긴장감, 사회유대감, 비행친구와의 차별적 접촉이 청소년 지위비행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학연구**, 20(10), 77-94.
- 신승연, 장현석 (2013). 부모의 자기통제력과 양육방식이 청소년비행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아버지와 어머니의 자기통제력 비교를 중심으로. **한국범죄학**, 7(2), 3-33.
- 유순화, 정규석 (2003). 청소년 음주흡연에 관한 사회학습이론적 분석. **청소년학연구**, 10(2), 195-214.
- 이완희 (2014). 한국 청소년들의 중비행에 관한 범죄이론적 비교연구. **한국경찰학회보**, 16(1), 139-160.
- 이완희, 유완석 (2014). 청소년 지위비행에 관한 분석적 연구: 청소년 비행이론을 중심으로. **한국경호경비학회지**, 39, 217-239.
- 이완희, 황성현 (2014). 청소년의 부정적 자극이 친구차별접촉과 긴장요인을 매개로 청소년 비행에 미치는 영향. **한국경찰학회보**, 16(5), 197-218.
- 이혜순 (2014).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충동성 및 정신건강이 휴대전화 중독에 미치는 영향.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4(6), 200-210.
- 임은희, 남현주 (2008). 부모와의 관계 및 청소년 스트레스 간의 상호작용이 청소년 비행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학연구**, 15(3), 23-48.

- 진영실 (2003). 성, 사회유대, 비행에 대한 연구: 가족적 요인을 중심으로. *형사정책연구*, 14(1), 313-347.
- 정소희 (2007). 사회경제적 지위, 부부갈등, 부모양육행동, 자아통제력이 청소년비행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분석. *사회복지연구*, 32, 5-34.
- 조유정, 석주영, 박인진 (2005). 부모로부터 학대받은 경험이 자기통제성과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일반청소년과 비행청소년의 비교를 중심으로. *한국청소년연구*, 16(1), 133-164.
- 최은미, 신점란, 배재홍, 김명식 (2014). 대학생의 우울, 불안, 충동성, 공격성과 인터넷 중독과의 관계-자아 탄력성의 조절효과.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4(8), 329-341.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5).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KCYPS) 중1 패널 1-2차년도 User's Guide*.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황성현 (2012). 청소년 흡연, 음주행위의 원인에 대한 비행이론적 접근: 일반긴장이론과 사회학습이론을 중심으로. *보건과 사회과학*, 32, 23-42.
- 황성현 (2010a). 청소년 지위비행에 관한 비행이론 비교연구. *청소년학연구*, 17(5), 49-68.
- 황성현 (2010b). 부모와 친구요인이 청소년 음주·흡연행위에 미치는 영향: *보건과 사회과학*, 27, 81-103.
- 황성현 (2009). 청소년 음주흡연행위에 관한 사회유대, 자아통제, 사회학습이론적 고찰. *한국청소년연구*, 20(1), 113-139.
- 황성현 (2008). 한국과 미국 청소년들의 음주행위에 관한 비교 연구: 사회학습이론을 중심으로. *보건과 사회과학*, 23, 5-29.
- 황성현 (2007). 한국과 미국 청소년들의 약물남용에 관한 비교연구. *한국범죄학*, 1(1), 73-90.
- 황성현 (2006a). 낮은 자아통제감, 친구집단요인, 부모요인이 청소년 약물사용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학연구*, 13(5-1), 129-154.
- 황성현 (2006b). 의미있는 타자와 청소년 약물남용간의 관계: 부모와 동료집단의 영향을 중심으로. *보건과 사회과학*, 19, 51-69.
- 황성현, 이강훈 (2013). 청소년비행의 원인에 관한 사회학습, 사회유대, 일반긴장이론적 접근. *한국청소년연구*, 24(3), 127-145.
- 황혜원 (2009). 한국 청소년 비행의 이해를 위한 중단적 연구: 일반긴장이론을 중심으로. *아동과 권리*, 13(1), 1-31.

## 2. 국외문헌

- Agnew, R. (1992). Foundation for a general strain theory of crime and delinquency. *Criminology*, 30, 47-87.
- Agnew, R., Brezina, T., Wright, J., & Cullen, F. (2002). Strain, personality traits, and delinquency: Extending general strain theory. *Criminology*, 40(1), 43-71.

- Akers, R. L. & Sellers, C. S. (2011). *Criminological Theories: Introduction and Evaluation*. Second Edition. Oxford University Press, Inc. (민수홍·박기석·박강우·기광도·전영실·최병각 역. (2011). *범죄학이론*. 서울: 나남출판사).
- Brezina, T., & Piquero, A. R. (2003). Exploring the relationship between social and non-social reinforcement in the context of social learning theory. pp.265-288 in Ronald L. Akers and Gary F. Jensen (eds). *Social Learning Theory and the Explanation of Crime: A Guide for the New Century. Advances in Criminological Theory, 11*. New Brunswick, NJ: Transaction.
- Broidy, L. (2001). A test of general strain theory. *Criminology, 39*(1), 9-35.
- Burton, V. S., Cullen, F. T., Evans, T. D., & Gregory, D. R. (1994). Reconsidering strain theory: Operationalization, rival theories, and adult criminality. *Journal of Quantitative Criminology, 10*, 213-239.
- Cernkovich, S., & Giordano, P. (1992). School bonding, race, and delinquency. *Criminology, 30*, 261-291.
- Chappell, A. T., & Piquero, A. R. (2004). Applying social learning theory to police misconduct. *Deviant Behavior, 25*, 89-108.
- Costello, B. J., & Vowell, P. R. (1999). Testing control theory and differential association: A reanalysis of the Richmond Youth Project data. *Criminology, 37*, 815-842.
- Evans, T. D., Cullen, F. T., Burton, V. S., Dunaway, R. G., Benson, M. L. (1997). The social consequences of self-control: Testing the general theory of crime. *Criminology, 35*, 475-504.
- Gibbs, J. J., & Giever, D. (1995). Self-control and its manifestations among university students: an empirical test of Gottfredson and Hirschi's general theory. *Justice Quarterly, 12*, 231-235.
- Gottfredson, M. & Hirschi, T. (1990). *A General Theory of Crime*. Palo Alto, CA: Stanford University Press.
- Grasmick, H. G., Tittle, C. R., Bursik, R. J., & Arneklev, B. J. (1993). Testing the core empirical implications of Gottfredson and Hirschi's general theory of crime. *Journal of Research in Crime and Delinquency, 30*, 5-29.
- Hirschi, T. (1969). *Causes of delinquency*. Berkeley, CA: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Holliday, H. (2000). Hooked on the net. *Psychology Today, 33*, 10-20.
- Hwang, S. H., & Akers, R. L. (2003). Substance use by Korean adolescents: A Cross-Cultural test of social learning, social bonding, and self-control theories. pp. 39-64 in Ronald L. Akers and Gary F. Jensen (eds.), *Social Learning Theory and the Explanation of Crime: A Guide for the New Century. Advances in Criminological Theory, 11*, New Brunswick, NJ: Transaction Publishers.
- Hwang, S. H., & Akers, R. L. (2006). Parental and peer influences on adolescent drug use

- in Korea. *Asian Journal of Criminology*, 1, 51-69.
- Krohn, M. D., Massey, J. L., Skinner, W. F. and Lauer, R. M. (1983). Social bonding theory and adolescent cigarette smoking: a longitudinal analysis.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24, 337-349.
- Mazerolle, P., & Maahs, J. (2000). General strain and delinquency : An alternative examination of conditioning influences. *Justice Quarterly*, 17(4), 753-778.
- Mitchell, P. L. (2000). Internet addiction: Genuine diagnosis or not? *Lancet*, 355, 632-641.
- Osgood, W. D., & Anderson, A. L. (2004). Unstructured socializing and rates of delinquency. *Criminology*, 42, 519-549.
- Piquero, n. L., & Sealock, M. D. (2000). Generalizing general strain theory: An examination of an offending population. *Justice Quarterly*, 17(3), 449-484.
- Piquero, A., & Tibbetts, S. (1996). Specifying the direct and indirect effects of low self-control and situational factors in decision-making: toward a more complete model of rational offending. *Justice Quarterly*, 13, 481-510.
- Sellers, C. S., Cochran, j. K., & Winfree, T. (2003). Social learning theory and courtship violence“ An empirical test. pp. 109-129 in Ronald L. Akers and Gary F. Jensen. (eds.) *Social Learning Theory and The Explanation of Crime: A Guide for the New Century, Advances in Criminological Theory*, 11. Piscataway, NY: Transaction Publisher.
- Wood, P. B., Pfefferbaum, B., & Arneklev, B. J. (1993). Risk-taking and self-control: Social psychological correlates of delinquency. *Journal of Crime and Justice*, 16, 111-130.
- Young, K. S. (1999). Internet addiction: evaluation and treatment. *Student British Medical Journal*, 12, 351-352.

【Abstract】

## The Relative Influence of Juvenile Delinquency Theories Using Korean Children and Youth Panel Data

Hwang, Sung-Hyu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the relative influences of juvenile delinquency using variables from Hirschi's social bonding theory, Agnew's general strain theory, Gottfredson and Hirschi's self-control theory, and Akers' social learning theory. The data derived from a sample of 2,018 high school students taken from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in 2013. Multiple OLS regression analysis indicated that social learning theory has the greatest impact on dependent variables than other theories. The results of regression analyses also explore the notion that without the social bond, general strain, and self-control variables, there is very little loss of explained variance when these variables are removed from the full equation. However, when the social learning factors are eliminated from the full equation, the change in  $R^2$  is dramatic. This result supported the idea that social learning variables had the strongest effect on the juvenile delinquency of Korean adolescents. The most important implication of this study is that it is the first study to test four major theoretical models for juvenile delinquency in Korea. It also makes a number of important contributions toward the further utilization of social learning in investigating juvenile delinquency for Korean high school students.

**Key words** : Juvenile Delinquency, Social Bonding Theory, General Strain Theory, Self-Control Theory, Social Learning Theory

---

\* Professor, Department of Youth Studies, The Cyber University of Korea.